

沈彦光의 屈原 楚辭에 대한 이해 - 「次離騷經」을 중심으로

장 증 오*

차 례

- | | |
|---------------------|-----------------------|
| 1. 들어가며 | 1) 「次離騷經」의 창작 시기 추정 |
| 2. 「次離騷經」과 「離騷」의 비교 | 2) 「擬離騷」, 「和離騷經」과의 비교 |
| 1) 『漁村集』 판본 편제상 차이 | 4. 「次離騷經」의 문학적 위상 |
| 2) 「次離騷經」과 「離騷」의 차이 | 5. 나가며 |
| 3. 沈彦光 「次離騷經」의 특징 | |

국문초록

漁村 沈彦光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으로, 그의 작품들이 실린 『漁村集』이 남아있다. 심언광의 인생 전반기는 비교적 평탄하였지만, 후반기에는 중종조에 권력을 독점하여 많은 誣獄을 일으켰던 金安老를 조정에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강릉으로 귀향하여 말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1540년에 일기를 마치게 되었다. 심언광은 김안로와 관계를 맺는 정치적인 행적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언광은 학식과 문학적인 능력을 골고루 갖추었으므로 시문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었다.

*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지금까지 심언광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으나 『어촌집』에 실린 훌륭한 辭賦들을 남겼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언광이 활동했던 조선 중기에는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의 기묘사화 등 커다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운 시기였다. 심언광이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김안로를 재등용한 것이 화근이 되어 탄핵을 받아 삭관당하고 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경력은 屈原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요직에서 소인배의 모함을 받아 좌천당하게 되었으므로 굴원의 초사가 심언광의 마음을 달래주는 중요한 기탁이 되었다. 이어 심언광과 굴원의 사이에는 18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국면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격동한 시대 배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요직에서 임금이나 소인배의 미움을 사서 유배당하게 되었다. 더불어 심언광의 문집에 사부도 여러 편 실려 있어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심언광 문집인 『어촌집』의 판본에 대해 편제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본마다 실려 있는 사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심언광이 지었던 「次離騷經」이 굴원의 「離騷」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먼저 사부 내용과 연보를 바탕으로 심언광의 「차이소경」이 창작된 시기를 추정해 볼 것이다. 또 심언광 이전 시기에 굴원의 「이소」를 본떠 지은 부는 두 편인데, 하나는 金時習의 「擬離騷」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심언광과 동시대 인물인 申光漢의 「和離騷經」이다. 두 작품과 비교하여 심언광이 지은 「차이소경」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 심언광의 「차이소경」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주제어 : 沈彦光, 「次離騷經」, 屈原, 「離騷」, 비교 연구, 金時習, 申光漢

1. 들어가며

漁村 沈彦光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으로, 그의 작품들이 실린 『漁村集』이 남아있다. 심언광의 인생 전반기는 비교적 평탄하였지만, 후반기에는 중종조에 권력을 독점하여 많은 誣獄을 일으켰던 金安老를 조정에 불러들였다는 이유로 강릉으로 귀향하여 말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1540년에 일기를 마치게 되었다. 심언광은 김안로와 관계를 맺는 정치적인 행적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언광은 학식과 문학적인 능력을 골고루 갖추었으므로 시문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심언광은 사람됨이 질박하고 솔직하며 시문을 잘하였다. 뜻을 얻자 자주 臺閣의 의논을 마음대로 하여 한때의 疏章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왔다.”¹⁾는 기록이 있다. 조선 중기 문인 허균은 심언광을 “중종대 최고의 문인으로 알려진 정사룡보다 더욱 뛰어나다.”²⁾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하여 심언광이 시문에 걸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심언광에 대한 연구는 한시에 대한 고찰³⁾이 가장 큰 비중을

-
- 1) 『중종실록』, 31년 1월6일, “彦光爲人, 野直, 能詩文, 及其得志, 屢擅臺閣之議, 一時疏章, 多出其手.”
 - 2) 허균, 『성소부부고』, 제26권, 부록1, 「학산초담」.
 - 3) 황수정,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양상」, 『한민족어문학』 90집, 한민족어문학회, 2020, 247-284쪽; 정시열, 「어촌 심언광의 한시 연구-『귀전록』에 나타난 만년심리에 대해서」, 『퇴계학논집』 2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437-465쪽;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한국시가문화연구』 4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5-29쪽;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고시가연구』 27집, 한국고시가문화학회, 2011, 233-258쪽; 하정승, 「어촌 심언광의 변세시에 나타난 창작기법과 미적 특질-『서정고』, 『북정고』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2권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119-154쪽; 하정승, 「어촌 심언광의 한시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동양학』 55집, 동양학연구원, 2014, 65-88쪽; 백숙아, 「어촌 심언광 한시의 감성적 특징과 효과」, 『동아인문학』 45호, 동아인문학회, 2018, 55-81쪽; 강지희, 「어촌 심언광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 『한문고전연구』 2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139-167쪽; 박동욱,

차지하고 있다. 이어 심언광의 사상과 정치관에 대한 연구⁴⁾, 그리고 해운정을 중심으로 한 논문⁵⁾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그런데 그의 문집인 『어촌집』을 살펴보면 작품 가운데 특히 辭賦에 능하여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언광이 활동했던 조선 중기에는 연산군 때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중종 때의 기묘사화 등 커다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운 시기였다. 심언광의 관직 생활을 살펴보면 27세 때인 1513년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정치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의 청요직에 종사하여 그의 환로는 탄탄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531년 심언광이 옥사를 여러 차례 일으켰던 김안로를 재등용한 것이 화근이 되어 탄핵을 받아 삭관당하고 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경력은 屈原⁶⁾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요직에서 소인배의

『조선 지방관의 고단한 서북 체험-『북정고』를 중심으로』, 『영남학』 23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3, 37-61쪽; 김형태, 『어촌 심언광 시의 자연 인식과 상징성 연구-동식물 소재에 구현된 특성을 중심으로』, 『동방학』 24집, 한서대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12, 89-110쪽.

- 4) 손홍철, 『어촌 심언광의 도학 정치관과 처세관』, 『울곡학연구』 41집, 울곡연구원, 2020, 127-156쪽; 손홍철, 『어촌 심언광의 선비정신』, 『유교사상문화연구』 61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15, 7-31쪽; 김명준, 『중종 시대 심언광의 정치 문학』, 『인문논총』 43집, 경남대 언론출판국, 2017, 47-63쪽; 구도영, 『심언광의 김안로에 대한 정치적 활용과 그 의도』, 『인문과학연구』 44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359-388쪽; 박도식, 『어촌 심언광의 북방 경험과 국방 개선안』, 『한일관계사연구』 4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45-92쪽; 박도식, 『조선전기 수령제의 실태와 심언광의 수령관』, 『인문과학연구』 40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4, 355-390쪽.
- 5) 이상균, 『조선시대 유림전통에서 별업의 명소화 과정-강릉 해운정을 중심으로』, 『국학연구』 45집, 한국국학진흥원, 2021, 81-113쪽; 이상균, 『강릉 『해운정역방략』의 내력과 지역사적 가치』, 『장서각』 40집,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250-282쪽; 김중서, 『어촌 심언광과 해운정-해운정에 걸린 현판을 중심으로』, 『한문학회』 37집, 우리한문학회, 2017, 3-34쪽.
- 6) 중국 학자들은 문헌학, 문예학, 신화학, 심리학, 민족학과 언어학 등의 다각도로 굴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크게 굴원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 굴원의 작품 및 한반도에 들어온 양상에 대한 연구, 楚辭學에 대한 연구, 굴원을

모함을 받아 좌천당하게 되었으므로 굴원의 초사가 심언광의 마음을 달래주는 중요한 기탁이 되었다. 이어 심언광과 굴원의 사이에는 1800년이라는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국면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격동한 시대 배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요직에서 임금이나 소인배의 미움을 사서 유배당하게 되었다. 더불어 심언광의 문집에 사부

뒤잇는 유명한 辭賦家인 宋玉에 대한 연구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굴원의 사상과 생졸년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굴원의 논란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다룬 趙達夫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作者特色與在文學史上之地位-『悲回風』論析』, 『名作欣賞』 19期, 2021, 83-87쪽; 『再次沿沅水南行後的絕筆-『懷沙』探微』, 『名作欣賞』 4期, 2021, 59-62쪽; 『任掌夢於漢北,王受驚以招魂-『招魂』駁議』, 『名作欣賞』 25期, 2020, 31-37쪽; 『初試鋒芒,已見襟懷-屈原『大招』解讀』, 『名作欣賞』 16期, 2020, 33-37쪽; 『開『離騷』幾種創作方法先河之作-論屈原的『思美人』』, 『名作欣賞』 7期, 2020, 36-38쪽; 『被放江南之野時的悲憤與牽心-『涉江』賞析』, 『名作欣賞』 34期, 2020, 43-46쪽; 周建忠, 『屈原世系考』, 『江蘇師範大學學報』 43卷3期, 2017, 1-24쪽; 鄭志強, 『屈原生年卒年與享年新考』, 『中原文化研究』 6期, 2017, 78-85쪽.

다음으로 굴원 작품이 한반도에 들어온 양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安海淑, 『思君惆悵幾時分,所願君恩不得閑-屈原文學對朝鮮朝“戀君歌辭”的影響』, 『東疆學刊』 38卷2期, 2021, 103-108쪽; 范永聰, 『韓國古代文人作品中的屈原意象』, 『동아문화』 54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16, 65-97쪽; 金哲, 『朝鮮詩人朴齊家與屈原的文學關係』, 『東疆學刊』 30卷1期, 2013, 13-18쪽; 琴知雅, 『曆代朝鮮士人對楚辭的接受及漢文學的開展』, 『聯大學報』 1期, 2012, 15-19쪽.

세 번째로 미학, 종교학, 신화학, 비교문학이라는 다른 시각을 통해 초사학에 대한 고찰을 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 管仁傑, 『朱熹楚辭三書遺稿面貌探考』, 『文獻』 2期, 2022, 44-67쪽; 李金善, 『近現代轉型期楚辭學的學術特徵』, 『河北大學學報』 46卷5期, 2021, 26-35쪽; 狄霞晨, 『中國人種西來說與近代楚辭學新變』, 『中山大學學報』 60卷4期, 2020, 92-101쪽; 李金善·郝皓, 『蘇雪林楚辭學“九天”研究及其文化意義』, 『河北大學學報』 44卷2期, 2019, 22-26쪽.

마지막으로 송옥에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張思齊, 『從辭賦源流看李白對宋玉的繼承』, 『廣東社會科學』 4期, 2021, 173-179쪽; 陽清, 『“屈宋”並稱及其之外-關於宋玉文學史地位的省思與再認』, 『北京社會科學』 6期, 2020, 70-82쪽; 王偉琴, 『『古文苑』宋玉六賦真假的學術史之辨』, 『河北學刊』 40卷2期, 2020, 102-106쪽; 李金坤, 『杜甫『秋興』八首與“悲秋之祖”『九辯』-杜甫對宋玉悲秋意識的承繼與發展探微』, 『雲夢學刊』 41卷2期, 2020, 45-55쪽; 周春豔, 『近十年『招魂』作者及魂主論爭述評』, 『雲夢學刊』 40卷2期, 2019, 37-43쪽.

도 여러 편 실려 있어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심언광 문집인 『어촌집』의 판본에 대해 편제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판본마다 실려 있는 사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심언광이 지었던 「次離騷經」이 굴원의 「離騷」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3장에서는 먼저 사부 내용과 연보를 바탕으로 심언광의 「차이소경」이 창작된 시기를 추정해 볼 것이다. 또 심언광 이전 시기에 굴원의 「이소」를 본떠 지은 부는 두 편인데, 하나는 金時習의 「擬離騷」이며, 또 다른 하나는 심언광과 동시대 인물인 申光漢의 「和離騷經」이다. 두 작품과 비교하여 심언광이 지은 「차이소경」의 특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 심언광의 「차이소경」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次離騷經」과 「離騷」의 비교

이 장에서는 먼저 지금 현존하는 각종 심언광 문집인 『어촌집』의 판본을 비교하여 판본에 따라 실려 있는 사부의 편제와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차이소경」을 중심으로 각 판본에 대한 편제상의 차이를 비교할 것이다. 그 다음 19세기본을 중심으로 심언광이 굴원의 초사를 어떤 방식으로 차운했는지, 더 나아가 굴원의 초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漁村集』 판본 편제상 차이

판본연구는 문헌자료의 감별, 비교, 해석을 다루고 있어 문학연구의 뼈대를 수 놓는 작업이다. 기존에 알려진 판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 문집총간에 수록된 1889년간 13권 4책의 목판본인데, 본고에서는 1889년본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의 16세기본 『어촌집』 일부(권5-6)와 1937년

심언광의 후손이 간행한 10권 4책의 석인본⁷⁾을 중심으로 판본별로 편제 상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할 것이다.

판본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제시한다.

판본	[A] 16세기본 권6	[B] 19세기본 권9	[C] 20세기본 권1
『차이 소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敢依離騷韻,爲賦以自悼 · 遵旁蹊而達康莊 · 羌濶視而緩步 · 事垂成而還敗 · 將試器於盤錯 · 仰玄穹而訶詢 · 痛幽冥之異路 · 天生大才之卓犖 · 肯祀竈以黃羊 · 紛百喙之詈予 · 彼陽文窈窕之姿 · 何害於敦洽之妬 · 又重之以蘭佩 · 吾焉忍而欺詒 · 入大學而鼓篋 · 講周誥與殷盤 · 揖羣英而同遊 · 聊懷寶以待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敢依離騷韻,爲賦以自悼焉 · 遵傍蹊而達康莊 · 羲濶視而緩步 · 事遂成而還敗 · 將試哭於盤錯 · 仰玄穹而訶詢 · 痛幽明之異路 · 天生大材之卓犖 · 肯祀竈而黃羊 · 紛百喙之詈余 · 彼陽文窈窕之資 · 何害於敦給之妬 · 又重之蘭佩 · 吾焉忍而期詒 · 入太學而鼓篋 · 講周誥與殷盤 · 挹羣英而同遊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敢依離騷韻,爲賦以自悼 · 遵旁蹊而達康莊 · 羌濶視而緩步 · 事垂成而還敗 · 將試器於盤錯 · 仰玄穹而訶詢 · 痛幽冥之異路 · 天生大才之卓犖 · 肯祀竈以黃羊 · 紛百喙之詈余 · 彼陽文窈窕之姿 · 何害於敦洽之妬 · 又重之以蘭佩 · 吾焉忍而欺詒 · 入大學而鼓篋 · 講周誥與殷盤 · 揖羣英而同遊 · 聊懷寶以待時

7) 한영규, 『어촌 심언광 문집의 판본에 대한 고찰』, 제12회 어촌 심언광 전국학술세미나, 2021, 68-70쪽. 한영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1889년본이 아닌, 17세기 목판본과 20세기 석인본을 중요한 문헌학적 자료로 발굴하였다. 논문에 따르면 성암고서박물관에 17세기 목판본 7권 4책 완질이 소장되어 있지만 현재 열람 불가 상태이다. 대신 『어촌집』 권5-6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수록되어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1937년 간행된 강릉 해운정에서 발행한 10권 4책의 석인본 『어촌선생문집』은 성균관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오세옥이 쓴 해제에 따르면, “현재 성암고서박물관에 7권 4책의 목활자본이 전하는데, 序文과 行狀이 筆寫로 追補되어 있다. 이는 1572년 초간본으로 보이며 追補된 부분은 復爵된 이후에 붙인 듯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17세기 목판본이 아니라 16세기 목판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것을 16세기본으로 간주한다.

판본	[A] 16세기본 권6	[B] 19세기본 권9	[C] 20세기본 권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桂宜芳而不芳 · 奈何早世而乘化 · 誰悲婉變之季女 · 何須鑿八之爲糗 · 未暇一朝之樂 · 行莊不自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聊懷寶而待時 · 桂宜芳而不芳 · 奈何早歲而乘化 · 誰悲變婉之季女 · 何須鑿八之爲糧 · 未假一朝之樂 · 行藏不自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桂當芳而不芳 · 奈何早世而乘化 · 誰悲婉變之季女 · 何須鑿八之爲糗 · 未暇一朝之樂 · 行藏不自謀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판본에 따라 사부 배치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16세기본 『어촌집』 잔권⁸⁾에는 사부가 포함되는 文이 권6에 수록되어 있으며 19세기 간행 목판본에는 사부가 권9에 실려 있고, 또 20세기 강릉 해운정이 발행한 석인본에 나타난 사부가 권1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판본별로 사부의 배치순서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6세기본과 19세기본에 사부와 祭文, 哀冊文, 哀辭, 歌謠, 記 등을 한 권에 수록한 것과 달리 20세기본의 편제에서는 사부를 ‘문’에 분류하지 않고 따로 열거하여 한 권으로 삼았다.

2) 『次離騷經』과 『離騷』의 차이

이 절에서는 형식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 두 방면으로 나누어 두 작품의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兮’자의 사용방식 및 배치양상과 음수율 등 형식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굴원의 작품을 보면 句法 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이소』처럼 虛詞 ‘혜’자를 운용한 형식도 있고, 『天問』과 같은 四言句 형식과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도 있다. 뿐만

8) 국립중앙도서관의 16세기본 『어촌집』 잔권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열람할 수 있으며 권5는 시이고 권6은 문이다. 오세옥은 “이는 1572년 초간본으로 보이며 追補된 부분은 復爵된 이후에 붙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16세기본이 초간본이므로 가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16세기본의 권6에는 진귀한 자료로 『차이소경』이 남아있다.

아니라 『招魂』처럼 두 형식이 다 포함된 겸용형식도 있다. 굴원의 ‘騷體’ 시는 『이소』와 같은 종류의 시를 가리키지만, 그것이 일종의 독립적 시체로 취급된 것은 句尾 혹은 句中에 일률적으로 하나의 조사 ‘혜’자를 사용한 새로운 형식을 운용했기 때문이다.⁹⁾

굴원의 ‘소체’가 확립되기까지는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시경』의 구식을 계승한 사연구 형식의 창작과정이고, 둘째는 그 사연구식과 남방시가의 ‘혜’자 구식을 겸용한 구법의 창작과정이다. 이것은 ‘소체’가 돌연변이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요, 『시경』의 영향하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여 『이소』에 이르러서는 『시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남과 동시에 중국 남방시가의 구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¹⁰⁾ 굴원의 작품에 있어서 『천문』을 제외하고 각 편마다 ‘혜’를 사용한 것은 초사의 문체 표식이 된다. ‘혜’자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경』과 달리 초사에서는 상당히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초사에 나타난 ‘혜’자는 양적으로 많고 분포가 정연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소』에서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¹¹⁾ 같은 경우 ‘혜’가 奇數句 구미에 드러나고, 『九歌』 중에 “悲莫悲兮生別離”¹²⁾처럼 ‘혜’가 구중에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초사에서 ‘혜’를 사용하는 방식을 고찰해보면 전편을 중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작품의 서두를 보고 ‘혜’의 위치를 확인했다면 다음 시행에서는 ‘혜’가 같은 곳에 드러날 것이다. 심언광이 지은 사부는 ‘혜’의 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游國恩, 『楚辭概論』, 商務印書館, 1930, 10쪽.

10) 범선균, 『굴원문학논집』, 신아사, 2001, 12쪽.

11) 범선균, 『이소의 이해』, 신아사, 1997, “江離와 辟芷 몸에 걸치고, 秋蘭을 꿰매어 패물을 만들어 찻네.” 본문의 『이소』에 대한 예문은 모두 범선균의 『이소의 이해』에서 인용하였다. 이하 생략.

12) 류성준, 『초사』, 문이재, 2002, 『소사명』, “슬픈 일 가운데 생이별보다 더 슬픈 일 없으며.”

제목	句中에서 '혜' 사용	홀수구에서 '혜' 사용	짝수구에서 '혜' 사용
『차이 소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斗室兮蕭條(15)¹³⁾ • 玉昆兮金友(83) • 故山遠兮天之東(105) • 旅魂飄泊兮日暮長安(106) • 赤血流兮沾裳(120) • 山繚繞兮異尋常(133) • 柏色慘兮愁余(137) • 修天爵兮祿自至(161) • 臥牛衣兮窮可忍(162) • 白雲何處兮海天遙(254) • 魂恍惚兮何所之(290) • 經綸大手兮鹽梅可調(298) • 重陰盛兮天地黑(307) • 一心忠孝兮上帝是祇(331) • 青春兮幾時(341) • 曷不樂天兮先哲是與(362) • 禮羅兮高張(369) • 蒲輪兮四馳(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愁緒萬縷兮(77) • 若有一介士兮(2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依舊田園兮(264)

굴원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六言句로 구성되어 있다. 葛曉音은 소체 이분 운율을 세 가지 구조 형식으로 요약했는데, 3·2, 3·3, 2·2 조의 音數律이다.¹⁴⁾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소체 구형의 음수율은 3·2조이고 이어 3·3조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이소』에서 “扈江離與辟芷兮 紉秋蘭以爲佩”¹⁵⁾라는 구절을 분석해보면 바로 3·2조 음수율이며 ‘與’와 ‘以’를 중심으로 각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또 ‘扈江離’와 ‘紉秋蘭’이 3언이고 ‘辟芷’와 ‘爲佩’가 2언이다. 그 중에서 ‘與’, ‘兮’와 ‘以’는 다 虛詞이다. 조사에서 ‘혜’자는 단순히 소리를 길게 끌기 위하여 쓰였거나,句의 중간에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쓰였거나, 구의 절주

13) 이 숫자는 홀수구나 짝수구나를 가리킨다.

14) 葛曉音, 『從『離騷』和『九歌』的節奏結構看楚辭體的成因』, 『學術연구』 12期, 2004, 124-131쪽.

15) 『이소』, “江離와 辟芷 몸에 걸치고, 秋蘭을 꿰매어 패물을 만들어 찻네.”

를 이루기 위하여 쓰였거나, 여하간에 그것이 한 음으로서의 역할은 하되 뜻 없이 쓰는 경우¹⁶⁾도 있어 매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劉熙載는 “屈騷의 절주가 허사를 句腰로 삼고 있는데, 이를테면 之, 于, 以, 其, 而, 乎, 夫가 그렇다.”¹⁷⁾고 하였는데, 이를 빌려 중국 학계에서는 굴원 작품 중에 五言 이상의 시행 가운데 구미에 ‘혜’자를 제외하고 뒤에서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음절에 분포하는 허사를 句腰虛詞라고 부른다. 「이소」의 “伏清白以死直兮 固前聖之所厚”¹⁸⁾라는 구절 중에 나타난 ‘以’, ‘之’는 바로 구요다. 이는 자연히 초사의 통일된 절주표지, 즉 六言二分이라는 절주를 형성하게 되었다.¹⁹⁾

도표를 통해 심언광의 사부는 구중에서 ‘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의 작품인 「차이소경」은 굴원의 「이소」에 나타난 3·2조 음수율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之’, ‘而’, ‘於’라는 구요허사도 「이소」와 마찬가지로 다량 표현되어 있다. 「차이소경」 이외에 「黃河賦」, 「龍虎榜賦」, 「受降城賦」 등 사부에서는 음수율상 3·2조를 위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3·2조라는 음수율이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용호방부」, 「宇宙三綱之棟樑賦」, 「鼓賦」 이 세 작품에서는 ‘혜’자를 운용하지 않았으나 그 대신에 다른 구요허사로 표현하였다.

심언광은 굴원의 작품을 차운해 사부를 창작하였는데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굴원 초사의 형식에 두드러진 특색은 ‘혜’자를 많이 운용한다는 것이다. 굴원의 「이소」는 ‘혜’자가 홀수구 구미에 드러나는 반면, 심언광의 「차이소경」은 “愁緒萬縷兮”, “依舊田園兮”, “若有一介士兮”²⁰⁾라는 구절을 빼고 나머지 작품에서는 ‘혜’자가 구요허

16) 범선균, 『굴원문학논집』, 신아사, 2001, 167쪽.

17) 劉熙載, 『藝概』, 上海古籍出版社, 1978, 102-103쪽, “騷調以虛字爲句腰, 如之, 于, 以, 其, 而, 乎, 夫是也.”

18) 「이소」, “청백함 보존하고 정직 위해 죽는 것은, 본래 옛 성인들이 중시한 것이었네.”

19) 梁文勤, 「‘兮’의演進」, 『中國韻文學刊』 35卷2期, 2021, 10쪽.

20) 심언광, 『국역 어촌집』, 정향교 외(유희김), 강릉문화원, 2006, “수많은 을 실가닥과

사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 나아가 음수율에 있어 「이소」는 3·2조나 3·3조를 위주로 하여 얼핏 보기에 정연한 형식이다. 이에 비해 「차이소경」이 3·2조를 중심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旅魂飄泊兮日暮長安”²¹⁾이라는 4·4조, “白雲何處兮海天遙”²²⁾라는 4·3조, “玉昆兮金友”²³⁾ 같은 2·2조 등 다른 음수율을 포함한 자유로운 형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심언광 사부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차이소경」과 「이소」의 내용적 차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차이소경」의 序에 대한 내용을 첨부한다.

내가 이소경을 읽고 굴원과 시대를 함께 하지 못했음이 매우 슬프다. 천년 후에 그 책을 읽으니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다. 아! 세상에는 현인 군자가 있으나 뜻을 얻지 못해 울적한 심정으로 있는데, 이를 용렬한 사람이 보고 그치게 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감히 이소의 운에 따라 부를 지어 스스로 위로하노라.

余讀離騷經 深悲屈原之未遇時也 千載之下 讀其書 可以知其人矣 噫 世有賢人君子 鬱鬱不得志 庸夫見而弭之 豈不悲夫 敢依離騷韻 爲賦以自悼焉

- 「차이소경」

인용문을 보면 심언광은 굴원이 좋은 때를 태어나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애석해하는 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弭’라는 자이다. ‘미’의 의미는 ‘이완시키다’ 혹은 ‘느긋하게 하다’는 뜻인데, 심언광은 굴원의 「이소」를 읽고 평범한 사람들이 굴원과 같은 훌륭한 사람마저 기를 펴지 못해 울적해하자 스스로 마음을 느긋하게 먹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통

시름하며, “전원은 예전 그대로이고”, “만약 일개 선비가 있어.” 본문의 심언광 작품에 대한 예문은 모두 『국역 어촌집』에서 인용하였다. 이하 생략.

21) 「차이소경」, “나그네 닳은 해가 지면 서울 장안을 정처 없이 떠다니니.”

22) 「차이소경」, “흰 구름 어느 곳에 바다는 멀고.”

23) 「차이소경」, “옥곤금유는.”

해 심언광이 이에 대해 매우 애석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심언광은 “스스로 위로함”의 감정을 나타냈다. 여기의 “自悼”는 자아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심언광은 굴원을 스스로 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기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출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출세 모습이 『차이소경』에서 여러 차례 나타났다.

가운이 쇠퇴하여 門衰祚薄
기세가 매우 미미하니 氣勢甚微
누가 나를 호걸에 넣어 주겠는가? 孰能齒余於俊英
만일 한번 소양을 펴서 儻一展乎素蘊
어떠한 상처에서도 구사일생 하더라도 雖九死其何傷
창려는 목숙만을 먹었고 餐昌黎之苜蓿
유곤은 석예만을 먹었도다. 餌庾袞之石蕊

...

때를 잃지 말고 힘써 학문하여 當及時而力學
우리 집안의 화려한 색채를 빛나게 하라. 耀華彩於我家

...

못 새들은 봄을 기다리며 앵앵 울고 衆鳥待春而嚶嚶
온갖 벌레들은 가을을 기다리며 짹짹대도다. 百蟲俟秋而啾啾
하물며 현인과 재사가 세상에 태어나 況賢人才士之生於世
무엇을 잘못했기에 반드시 곤경에서 끝마치는가? 何負而必終於困極

...

행운이 가지 않고 좋은 시대가 오니 幸否往而泰來
내가 나가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吾不出而何待
위대한 성인이 지금 위에 있으니 偉聖人之在上
천년에 한번 아름다운 시절 오리라. 應千一之休期
예의 그물이 크게 열려 있어 禮羅兮高張
부들바퀴가 사방으로 달리도다. 蒲輪兮四馳
못용이 초택에서 일어나 群龍之起於草澤
와서는 차분하고 위위가 있는데 來委委而蛇蛇
나는 어찌하여 산중에 있게 되었는고? 我胡爲乎山之中
요대가 아득히 먼 것을 눈물 흘리며 泣瑤臺之緬邈

오래토록 종신의 근심을 걱정했으나 永懷終身之憂
 아직 일조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했노라. 未假一朝之樂
 내가 시서의 글을 읽고 있지만 目耕詩書之藪
 몸은 예의의 마을에 거처하고 있도다. 身居禮義之鄉
 긴 두레박줄로 깊은 샘물 길면서 得脩綆以汲古
 다시 힘껏 행하리라. 復勉強而力行
 마땅히 만리밖에 제후를 세우니 當建侯於萬里
 어찌 비루한 도읍에서 포과로 지내겠는가? 豈匏繫於鄙都
 행하고 감춤은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니 行藏不自謀
 앞으로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에 머물겠노라. 庶將居天下之廣居
 - 『차이소경』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심언광이 출세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엿보인다. 대체적으로 조선시대의 시문이 굴원에 대한 애도·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데²⁴⁾, 이와 달리 심언광의 작품은 관각문화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차이소경』의 결말은 심언광이 “當建侯於萬里 豈匏繫於鄙都 行藏不自謀 庶將居天下之廣居”²⁵⁾라고 하여 출세에 대한 적극적인 결심과 의욕적인

24) 조선시대 문인들이 굴원을 언급할 때는 비통을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시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李苻, 『容齋集』 권5, 『離騷後跋』, “굴원인들 어찌 자기가 죽는 것을 좋아했겠는가. 그의 말을 보면, ‘차라리 훌쩍 죽어서 사라질지언정 환난이 다시 닥칠까 두렵도다.’ 하였으니, 그 뜻이 참으로 슬프다 하겠다. (原也豈樂其死者也 觀其言曰 寧溘死而流亡兮 恐禍患之有再 其志可哀也)”, 한국고전종합DB, 이상하(옮김), 1999.

申光漢, 『企齋集』 권5, 『書和離騷卷端』, “천고 상강에서 빚어진 일에 어찌하여 한이 유독 깊네. 피는 분명히 남겨 있고 마음속에 아직도 우열함을 머금네. 구름 흩어지고 창오 어둑하며 마음 슬퍼 백발 칩칙하네. 남은 것은 미진한 말 뿐 회답하려 옷깃 다시 젖도록 눈물 흘리네. (千古湘江事 如何恨獨深 分明猶有血 嗚咽尚含心 雲去蒼梧杳 悲來白髮森 唯餘不盡語 欲和更霑襟)”, 한국고전종합DB, 필자(옮김);

金淨, 『冲庵集』 권2, 『讀離騷經』, “담담한 장강물 천추의 슬픔 아직도 남겼네. (湛湛長江水 千秋尚遺悲)”, 한국고전종합DB, 필자(옮김).

25) 『차이소경』, “마땅히 만 리 밖에 제후를 세우니 어찌 비루한 도읍에서 포과로

심정을 나타내며 굴원이 팽함²⁶⁾을 따라 목숨을 바치는 “吾將從彭咸之所居”²⁷⁾와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심언광 「次離騷經」의 특징

1) 「次離騷經」의 창작 시기 추정

초사가 한반도에 들어온 뒤 굴원의 고결한 인격과 탁월한 학식은 문인들의 많은 추앙을 받았다. 그들은 「이소」, 「천문」, 「사미인」 등을 본뜬 작품을 많이 지었다.²⁸⁾ 심언광 역시 「차이소경」을 지었는데, 먼저 이 작품의 창작 시기에 대하여 논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내 자신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득하니 邈余身之墜地
타고난 천성의 범용함을 부끄러워하노라. 愧天質之凡庸

지내겠는가? 행하고 감춤은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에 머물겠노라.”

26) 彭咸, 은나라 충신으로 임금에게 간하여 듣지 않음에 물에 투신했으며 굴원의 추앙 대상이다.

27) 「이소」, “내 장차 팽함의 거처로 쫓아가리.”

28) 그 작품들 가운데 사부보다 시가가 더욱 많으며 종류에 따라 총괄적으로 정리해본다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굴원 또는 굴원의 작품을 둘러싸고 그의 고결한 인격을 찬양하는 동시에 불우한 처지를 애석해하면서 비분강개한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둘째, 굴원의 작품을 본뜬 것과는 달리 자신의 작품에서 간단히 굴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와 도연명을 함께 두거나 굴원과 같은 경험을 가진 宋玉, 伍子胥를 함께 모아 읊은 경우가 있다. 예컨대 李穡의 「辭辨」, 金麟厚의 「汨羅弔屈原」 등이 있는 것이다. 셋째, 굴원에 대한 태도를 위주로 한 작품이다. 중국에서 대부분의 문인들은 굴원을 충신·현인의 모습으로 보는데, 賈誼와 班固 등 문인들은 굴원이 물에 투신해 순절하는 일을 부정적 평가도 있다.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문인들이 굴원을 추상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李奎報의 「屈原不宜死論」처럼 굴원의 순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

뜻밖의 화가 날마다 이르러 有奇禍之日至
 큰 복이 제때 내린 때가 없다. 無純嘏之時降
 아름답고 밝은 성세에 當休明之盛世
 한 이름을 얻지 못했음을 부끄러워하노라. 羞未得乎一名
 어머니는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고 母被髮而椎心
 형님은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도다. 兄踰高而踳厚
 이전에 들으니 어진 자는 반드시 장수한다 하나 曩聞仁者之必壽
 어찌 천도가 혹 법도에 어긋나는가? 何天道之或反
 이승과 저승 길이 다름을 마음 아파하니 痛幽明之異路
 음성과 모습이 너무 멀어 조용하도다. 音容閔其已遠
 내 나이 어렸을 때에 時余齒之初齠
 포대기의 천식은 면했으나 免襦褌之喘息
 추포를 잘라 관을 만들고 裁麤布以爲冠
 최마를 잘라 복을 만들었도다. 裂衰麻以爲服
 상여를 당기며 슬피우니 扣靈櫬而哀哭
 붉은 피가 흘러 옷깃을 적시도다. 赤血流兮沾裳
 무릇 옥지는 무성하고자 했으나 夫何玉芝之欲茂
 낙엽은 가을이 되기도 전에 향기를 거두노라. 葉未秋而收芳
 수척해진 세 아들은 欒欒三子
 길이 영구히 그 의지할 바를 잃어 永失其依歸
 ...
 3년이 이리 잘 바뀌는구나. 三霜條其易變
 또 최복을 벗고 가복차림으로 돌아가니 又釋衰而反嘉服
 오장 속 모두다 아프도다. 五內盡然而傷痛
 ...
 신령의 귀의할 바를 바라며 冀神靈之依茲
 대상(大祥)을 지내고 홀어미에게 절을 하니 抱祥琴而拜寡母
 어머니는 거듭 하소연하기를 母申申其陳詞
 너의 아버지는 불행하게도 曰汝父之不幸
 그만 중년에 일찍 돌아가셔서 奄中年而早終
 집 앞의 난초는 죽고 芝蘭枯於戶庭
 가시나무가 집가에 생겨났도다. 荊棘生於家巷

일반적으로 초사는 모두 1인칭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擬騷體²⁹⁾ 작품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통으로 볼 수 있다. 인용문에서 심언광 역시 1인칭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 내용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초사 작품에서도 1인칭으로 굴원의 상황을 소개하는 부도 있으나, 여기서 “凡庸”, “羞未得乎一名”라는 표현은 굴원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내용은 심언광 부친의 장례식을 묘사하였다. 또 “抱祥琴而拜寡母”라는 구절에서는 大祥일 때 모친이 심언광 형제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여 조상의 업을 계승하라는 훈계 장면을 보여주었다. 심언광 부친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가 아홉 살 때였고, 모친이 돌아가신 것은 1526년, 마흔 살 때였다. 모친이 돌아가셨다면 모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한 마디라도 표현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차이소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인용문 첫 부분에서 “有奇禍之日至”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의 “奇禍”는 당시의 사회 배경과 맞물려 기묘사화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1519년에 일어난 기묘사화로 말미암아 심언광은 역시 이 사회에 연루되어 鏡城教授로 폄출되었다. 이상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심언광이 이 작품을 창작한 시기는 사회가 일어난 1519년부터 그의 모친이 돌아가신 1526년 사이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심언광의 나이 33세부터 40세 사이, 결과적으로 유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 『擬離騷』, 『和離騷經』과의 비교

심언광이 있던 시기 이전을 기준으로 『이소』를 본떠 지은 부가 그리 많지 않고 김시습의 『의이소』와 신광한의 『화이소경』뿐이기 때문에 세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초사에서는 수많은 시구가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 형식은 심언광의 『차이소

29) 의소체란 주로 초사 형태의 句型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경], 김시습의 『의이소』, 신광한의 『화이소경』에서도 종종 존재한다. 다만 자신의 작품에서 반복하기보다 굴원 작품의 어떤 구절을 그대로 베끼거나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그 이미지를 빌려 이해에 따라 고쳐 쓴 경우도 있다. 반복한 구절을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수많은 올 실가닥과 시름하며, 헝클어진 노끈 연이어 있다.

愁緒萬縷兮，亂繩纒纒。

고향의 발두둑에 나아가 나물을 뜯어도 나물이 무성하여 아직 없어지지 않는구나.

從故畦而擷芳，芳霏霏而未沫。

- 『차이소경』

균계를 들고서 혜초를 꿰매고, 길고도 아름다운 호승을 새기 꼬네.

矯菌桂以紉蕙兮，索胡繩之纏纏。

향기는 그윽하고 줄어들기 어려우니, 향기는 지금까지도 오히려 사라지지 않네.

芳菲菲而難虧兮，芬至今猶未沫。

- 『이소』

진실로 내 마음의 착함이며, 비록 아홉 번 죽는다 해도 버리기 어려우리.³⁰⁾

寔余心之所善兮，雖九死其難拋。

- 『의이소』

또한 내 마음으로 애호하는 것이니, 비록 아홉 번 죽을지라도 오히려 후회하지 않으리.

亦余心之所善兮，雖九死其猶未悔。

- 『이소』

30) 김시습, 『국역 매월당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옮김), 강원도, 2000. 본문의 『의이소』에 대한 번역문은 모두 『국역 매월당집』에서 인용하였다. 이하생략.

길은 아득히 곧게 뻗어 어찌 조그만 실수가 있으랴?³¹⁾

路曼曼其脩直兮，夫豈一毫之或差。

- 「화이소경」

길은 아득하여 길고 멀지만, 나는 오르내리며 (하소연할 하느님을) 찾아 보려네.

路曼曼其修遠兮，吾將上下而求索。

- 「이소」

먼저 인용문 「차이소경」의 “亂繩纒纒”와 「이소」의 “胡繩之纒纒”，「화이소경」의 “路曼曼其脩直兮”와 「이소」의 “路曼曼其修遠兮” 등에서 나타나듯 굴원의 시구의 글자 한두 개를 바꿔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차이소경」의 “從故畦而擷芳 芳霏霏而未沫”과 「이소」의 “芳菲菲而難虧兮 芬至今猶未沫”이라는 구절처럼 키워드의 반복을 통해 길으로는 화초의 향기가 변하지 않는 것을 묘사한 부분은 실제로는 시인의 움직임이 않은 확고한 절조를 상징하기도 한다. 나아가 심언광은 굴원이 사용한 ‘蘭芷’와 같은 이미지 등을 통해 굴원의 말투를 빌려 시인의 사상을 표현한다. 예컨대 “荷衣蕙帶之繽紛 又重之蘭佩”³²⁾라는 구절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에서 서술은 ‘나’의 역할 전환에 따라 새로운 공간의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인물이 활동을 추구하는 새로운 공간이 된다. 이러한 공간의 전환에 있어 심언광의 「차이소경」에는 “謁玉皇於紫府”³³⁾라는 구절이 있다. 즉 시인이 현실에서 고민을 해소시킬 수 없으므로 紫府宮에 있는 옥황상제를 찾아가는 것도 역시 비슷한 구상이다. 21세에 진사시에 합격했던 심언광은 「차이소경」에서 “世共嫉其勝己 紛百喙之訾

31) 김성수, 『사부문학연구』,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본문의 「화이소경」에 대한 번역문은 모두 김성수의 『사부문학연구』에서 인용하였다. 이하생략.

32) 「차이소경」, “하의와 혜대를 필터이고 또 난괘를 중시할 터네.”

33) 「차이소경」, “자부에 있는 옥황 집을 방문하니.”

余”³⁴)라는 한탄의 심정을 표현하고, 이어 현실 공간과 夢境에서 신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세속적 현실의 경지에 대한 부정으로 인해 또 다른 환상적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對偶는 중국 문자의 특성에서 나온 중국 특유의 수사이다. 심언광은 『차이소경』에서 “枳當枯而不枯 桂宜芳而不芳”³⁵), “衆鳥待春而嚶嚶 百蟲俟秋而啾啾”³⁶)와 같은 대우 수사기교를 사용하였다. 『이소』를 본떠 신광한의 『화이소경』에서도 “佩明月爲琳琅兮 襲芳菲乎蘭藏”³⁷)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고, 김시습도 작품의 “懷瑾握瑜卒罹辟兮 服蘭佩茝終可惜兮”³⁸)라는 구절에서 대우 수사기교를 사용한 바 있다. 또 『이소』에 나온 것처럼 세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纚纚”, “冉冉”, “萋萋” 등 疊語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시문을 더욱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여 강렬한 예술적 감화력을 보이고 있다.

이상으로 심언광, 김시습과 신광한 세 문인이 『이소』를 모방해 지은 사부의 공통점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같은 작품을 본떴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심언광의 『차이소경』이 두 사람의 작품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심언광의 작품에 나타난 특색에 주의를 기울여 고찰하고자 한다.

내 자신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득하니 타고난 천성의 범용함을 부끄러워하노라.

邈余身之墮地, 愧天質之凡庸.

34) 『차이소경』, “세상 사람 모두 자기를 이기는 것을 시기하며 백개의 입들이 어지러이 나를 욕하는구나.”

35) 『차이소경』, “탱자나무는 당연히 말라야 하는데 마르지 않고 계수나무는 당연히 향기로워야 하는데 향기롭지 않다.”

36) 『차이소경』, “못 새들은 봄을 기다리며 앵앵 울고 온갖 벌레들은 가을을 기다리며 짹짹대도다.”

37) 『화이소경』, “명월을 보배삼아 차고 향그런 난초를 몸에 두르고.”

38) 『의이소』, “고운 옥 품었어도 물리침을 당하노니 난초 옷에 궁궁이 찬 모습 애뜻토록 가없네.”

...

생업이 실로 세상 사람과 단절되어 남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으니,
業固殊於世之人, 宜夫人之不我與.

쓸쓸한 오두막에서 황야의 잡초에 의지하노라.

斗室兮蕭條, 倚荒野之萑莽.

- 「차이소경」

祖考의 아름다운 덕을 이어받음이어! 천지의 청명함을 稟受받았네.

承祖考之懿德兮, 稟天地之清明.

어찌 그리 性命의 순수함을 지녔으며, 氣稟의 精英함을 바탕으로 하였는가?

何性命之純粹兮, 資氣稟之精英.

- 「의이소」

先賢의 밝은 가르침을 우리르니 지극한 道는 中庸에 있다하네.

仰先覺之昭訓兮, 揭至道曰中庸.

근본의 始原을 밝히고, 바르고 큰 뜻을 전하시니

原厥本之攸始兮, 惟秉衷皇所降.

- 「화이소경」

위의 인용문은 ‘혜’자의 용법을 비교하기 위해 세 작품 중 일부를 절취했다. 언뜻 보더라도 심언광의 「차이소경」에 나타난 ‘혜’자의 분포는 다른 작품과 많이 다르다. 「차이소경」은 제목으로 보면 「이소」를 본떠 지은 작품이지만 ‘혜’자는 句腰虛詞로 구중에 사용된 형식인데, 이는 「九歌」에 나오는 句法을 따라 지은 것이다. 「이소」에서 ‘혜’가 홀수구 구미에 드러나고, 「구가」에는 ‘혜’가 구중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김시습의 「의이소」나 신광한의 「화이소경」은 형식적으로 「이소」를 완전히 따라 지은 작품이고 ‘혜’자가 홀수구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혜’자는 구요와 구미에서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少司命」을 예로 들면 음절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행에서 “悲莫悲兮生別離 樂莫樂兮新相

知 荷衣兮蕙帶 儻而來兮忽而逝”³⁹⁾처럼 ‘혜’를 구요로 한다면 한 구절씩 쓰면서 연속해 쓰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심언광은 『차이소경』에서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혜’자가 전편에서 걸쳐 규칙 없이 분포되어 지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홀수구 구미에서 ‘혜’를 쓰면 구요 위치에 ‘혜’자 대신에 ‘之’, ‘而’ 등 다른 허사가 배치돼 “衣艾荷之嫋妙兮 懷菝蘭之芳馨”⁴⁰⁾처럼 단일함을 피하고 풍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더불어 2장에서 분석했듯이 음수율은 『이소』가 3·2조나 3·3조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차이소경』은 3·2조를 중심으로 다루면서도 4·4조, 4·3조, 2·2조 등 다른 음수율도 포함한다. 『이소』의 음수율과 구법에 따라 지은 김시습, 신광한의 작품과 달리 자유로운 형식은 심언광 사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사부의 구성양식은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序-本-亂’, ‘본-난’, ‘서-본’, ‘無序-本-無亂’ 등 형식이 있다.⁴¹⁾ 이 표준에 따라 보면 김시습의 『의이소』는 서가 없으며 본이 있고 결말인 ‘난사’라는 표현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통해 ‘무서-본-난’이라는 형식에 속한다. 김시습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신광한의 『화이소경』도 서가 없으나 본과 ‘諱曰’이라는 ‘난’이 있음으로써 ‘무서-본-난’식으로 되어 있다. 이와 달리 심언광의 『차이소경』은 서두에 “余讀離騷經 深悲屈原之未遇時也...爲賦以自悼焉”⁴²⁾는 서가 있고 본도 있으며 말미에는 출세하고 싶다는 사상이 담겨 있지만 ‘난사’와 같은 명확한 표지가 없으므로 ‘서-본-무난’식에 속한다. 더불어 『차이소경』을 전체적으로 고찰할 때 ‘혜’자의 분포 위치나

39) 류성준, 『초사』, 문이재, 2002, 『소사명』, “슬픈 일 가운데 생이별보다 더 슬픈 일 없으며, 즐거운 일 가운데 새 사람 아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도다. 연꽃 저 고리와 혜초 허리띠를 두르고 홀연히 왔다가 떠나가도다.”

40) 『차이소경』, “예쁜 마름과 연잎으로 옷 지어 입고, 구리때 난초의 좋은 향기 품어 지녔네.”

41) 김성수, 『사부문학연구』, 공주대학교출판부, 2007, 93-106쪽.

42) 『차이소경』, “내가 이소경을 읽고 굴원과 시대를 함께 하지 못했음이 매우 슬프다...감히 이소의 운에 따라 부를 지어 스스로 위로하노라.”

‘난사’가 없다는 특징을 통해 「구가」의 형식상의 특징을 사용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가」 같은 사부는 편폭이 비교적으로 짧으므로 ‘난사’라는 표현이 없으며 이에 따라 심언광도 창작할 때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세 작품이 내용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특히 심언광의 「차이소경」에 나타난 특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심언광은 「차이소경」에서 父親喪에 대한 내용을 많이 첨가한 것이 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류 문학에서 ‘즐거워하되 넘치지 않고 슬퍼하되 손상하지 않는다(樂而不淫 哀而不傷)’는 원칙을 강조한 것과 달리 심언광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부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부에서도 강하게 표현하였다. 더불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심언광은 김시습과 신광한 작품에서처럼 굴원에 이입하여 비분강개라는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문인으로서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신하로서의 사명감을 표현하며 적극적인 현실참여정신을 드러냈다.

특히 작품의 결말에서 이러한 차이가 엿보인다. 「차이소경」의 결말에 “幸否往而泰來 吾不出而何待...群龍之起於草澤 來委委而蛇蛇 我胡爲乎山之中...行藏不自謀 庶將居天下之廣居”⁴³⁾라는 표현했듯이 심언광은 조정의 근심을 걱정하며 마지막에 『맹자』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⁴⁴⁾를 인용하여 굴원의 선택과 달리 좋은 시대가 오니 모든 기회를 획득하고 적극적으로 출세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신광한 역시 “我爲世臣兮 又焉能忘此故都 和湘纍之昌辭兮 不敢從彭咸之所居”⁴⁵⁾라고 하여

43) 「차이소경」, “행운이 가지 않고 좋은 시대가 오니 내가 나가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 못용이 초택에서 일어나 와서는 차분하고 위위가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산중에 있게 되었는고? ... 행하고 감춤은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니 앞으로는 천하의 가장 넓은 집에 머물겠노라.”

44) 『孟子』, 「滕文公下」, 『景春曰公孫衍張儀』, “천하의 너른 집(仁)에 거처하고, 천하의 바른 자리(禮)에 서며.”

45) 「화이소경」, “내 신하된 몸 어찌 나랏일을 잊으리오? 굴원의 忠情에 화답하려 하나 팽함의 뒤를 따르지는 못 하려니.”

굴원의 처지에 비통스러워 하나 신하로서 국가를 잊을 수 없고 팽함의 뒤를 따르지 않겠다는 현실극복 의지를 표현하며 심언광과 비슷한 입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사부에서 현실참여의식을 자아내지 않았다. 두 사람과 달리 김시습은 작품 말미에서 “天命不可度人情難謂兮 清白死直大人所貴兮 吾告堵敖以不長兮 寧溘死而不諱曲”⁴⁶⁾라고 하여 고결한 인품을 지녔던 팽함과 굴원의 뒤를 따라 목숨을 바쳐도 올바른 길을 건졌다는 다짐, 즉 찬탈한 세조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감정을 자아냈다.

4. 「次離騷經」의 문학적 위상

사부는 가장 귀족적이요, 사대부적인 문학이다. 이는 사부가 처음부터 관리등용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과거제도에서 사부가 인재 등용의 중요한 관문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이러한 지위를 굳히게 되어 나온 말이다.⁴⁷⁾ 사부라면 「이소」를 빼놓을 수 없다. 「이소」가 조선 문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나 이를 모방해 지었던 사부는 그리 많지 않고 김시습의 「의이소」, 신광한의 「화이소경」, 심언광의 「차이소경」과 신천익의 「반반이소」뿐이다.⁴⁸⁾

46) 「의이소」, “천명은 헤아릴 수 없고 인정은 말하기 어렵네만 청백하고 곧게 죽는 길 대신은 귀히 여긴다네. 이내 곱함이 오만하여 길지 못할 것이지만 차라리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꺼리지 않으리.”

47) 김성수, 「신광한의 사부문학-찬송·수신류」, 『한문고전연구』 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11쪽.

48) 본문은 「이소」를 본떠 만든 작품에 초점을 맞추고, 또 심언광의 「차이소경」의 특징을 탐구하기 위해 김시습의 「의이소」와 신광한의 「화이소경」을 비교했다. 그런데 신천익의 「반반이소」는 ‘擬騷體’라는 형식으로 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揚雄 「反離騷」에 나오는 관점을 반박하며 굴원의 충정을 찬양하는 작품이다. 심언광 등 세 문인이 「이소」를 차운해 쓰던 작품들과 달리 엄밀히 말하면 신천익의 「반반이소」는 양웅의 「반이소」를 비판한 작품으로 인해 본문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시습과 신광환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굴원과 공감을 불러일으켜 작품에서 그에 대한 동정과 애통함을 지극히 드러냈다. 이에 버림받았던 굴원에 대한 한탄에 기울이었다는 것은 두 문인들의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심언광은 屈騷 특유의 애원을 희석시키고 문인으로서 현실과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 국가와 임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중점을 두었고, 바로 투철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 적극적으로 출세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序에서부터 심언광은 평범한 사람들이 굴원과 같은 뛰어난 사람마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스스로 마음을 느긋하게 먹게 되었다는 일에 대한 매우 애석함을 표현했다. 이에 그는 「차이소경」을 지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자기 자신도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기도 했다. 또한 2장과 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출세 의지와 자기표현의식을 작품에서 쉽게 엿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관각문학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그의 사부의 독특한 매력이라 볼 수 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擬賦는 원작 부의 형식을 따랐으나 심언광은 창작하는 과정에서 음수율과 ‘혜’자의 분포 위치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더욱 부각시켰다. 내용상으로 부친상이 들어가 부친의 별세에 대해 극도의 애통함과 서운함을 드러내는 것은 ‘즐거워하되 넘치지 않고 슬퍼하되 손상하지 않는다(樂而不淫 哀而不傷)’는 유가적 문학관과 어긋난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애상적 정서가 없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심언광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특별하다. 이는 심언광이 삭탈관직되지 않았을 때는 강렬한 현실참여의식을 보이고 있는 반면, 실각 이후에 고향인 강릉에서 지었던 시들이 실린 『歸田錄』의 작품들에서는 지극히 절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하여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러한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아래의 시를 살펴보자.

孤亭草木欲生華, 외로운 정자와 초목이 꽃 피우려 하며
 勝地隨綠泊漢槎. 푸른 물결 따라 승지에 한사를 정박하네.
 半日清遊樽北海, 한나절을 산뜻하게 유람하며 북해의 술상을 베풀고
 十年榮宦夢南柯. 십 년 동안 영화로운 벼슬이 남가일몽였구나.
 丹心報國終無路, 단심을 가지고 보국하려 하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白首偷生更有涯. 늙어가면서 구차하게 목숨을 잇는 인생이 유한하네.
 消盡百憂惟一醉, 한번 취하는 것만 온갖 우환이 소진될 수 있으며
 醉眠連夜鼻成齷. 밤새도록 술에 취해 자고 사(齷, 뽀루지) 코에 빨강
 게 났네.

- 「찾아 준 한도사에게 사례하다(謝韓都事見過)」(三首其一)⁴⁹⁾

수련에서 “孤亭”이라는 시어로 정자를 의인화하여 시인의 외로움을 느끼게 했고, 게다가 “漢槎”라는 이미지가 부상되면서 나그네인 듯 의지할 데 없이 떠돌아다니는 느낌을 더했다. 함련에서는 지난날 관직에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의 사연을 담고 있다. 또 “夢南柯”라는 표현을 통해 공명을 추구했던 지난 세월이 부질없음을 자각한 모습을 보여준다. 동료로서의 韓都事를 보면서 나라를 위해 함께 신명을 바쳐 일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떠올리며 회의를 느끼고 있다. 멀리 강릉에 있어도 다시 등용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출사하고자 하지만 기회가 없다는 무력감을 표한다. 미련에서는 시름을 풀어줄 방법으로 술이 등장한다. 낙향 후 큰 충격을 받았던 심언광은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다고 토로할 만큼 괴로움이 많았다. 이 시에서는 심언광이 현실의 상황을 힘겨워하여 술에 소일하는 등 절망한 모습을 열렬히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언광의 「차이소경」은 형식과 내용에서 ‘굴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 출세의식과 자기표현의식이 뚜렷하게 나타

49) 『어촌집』 권5, 『귀전록』, 「謝韓都事見過」, 필자(웁김). 이 시는 16세기본에 실려 있다. 吳世玉의 해제를 살펴보았을 때 1572년 편찬했던 16세기본은 임진왜란이 나기 전에 전한 판본으로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는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된 19세기본에 없는 시이다.

나는 점에서 볼 때 굴원이나 다른 조선 문인과 사뭇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신하로서 현실에 입각한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이고, 사부를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제안하며 정치적 이상을 표현했다. 심언광의 『차이소경』은 사부의 美를 확대하여 조선 사부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심언광 문집인 『어촌집』의 판본에 대한 편제상의 차이, 판본마다 실려 있는 사부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또한 심언광이 지었던 『차이소경』은 굴원의 『이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굴원의 『이소』는 ‘혜’자가 홀수구 구미에 드러나는 반면, 『차이소경』은 ‘혜’자가 구요허사로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소』의 음수율은 3·2조나 3·3조를 위주로 하나 『차이소경』에서 3·2조를 제외하고 4·4조, 4·3조, 2·2조 등 다른 음수율도 포함하였다. 내용적 차원에서 굴원과 달리 출세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었다.

3장에서는 먼저 사부 내용과 연보를 바탕으로 심언광의 『차이소경』이 창작된 시기를 살펴 기묘사화가 일어난 1519년부터 그의 모친이 돌아가신 1526년 사이, 결과적으로 김안로를 등용시킨 일로 유배당하기 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심언광이 있던 시기 이전을 기준으로 『이소』를 본떠 지은 부가 그리 많지 않고, 앞선 시대 인물인 김시습의 『의이소』와 동시대 인물인 신광한의 『화이소경』만 있으므로 세 작품을 중심으로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들은 반복적인 형식으로 『이소』의 구절이나 키워드를 인용하여 한두 글자를 바꿔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으며 대우 수사기교나 첨어를 사용했고, 또 현실의 곤경에서 신선이 존재하는 환상적 공간으로 들어가 신들과 교류함으로써 번뇌를

해소하려는 심정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세 문인은 「이소」를 본떠 작품을 지었더라도 각자의 특색이 달랐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심언광 「차이소경」의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우선 형식상으로 「의이소」와 「화이소경」은 「이소」를 완전히 따라 하여 ‘혜’자가 홀수구에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차이소경」은 ‘혜’자가 구요허사로 구중에 사용된 형식인데, 이는 「구가」에 나오는 구법을 따라 지은 것이었다. 또한 「차이소경」에서는 ‘혜’자가 전편에서 걸쳐 규칙 없이 분포돼 지극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단일함을 피하고 풍부한 변화가 나타났다. 음수율에 있어서도 김시습과 신광한의 작품에서는 「이소」처럼 3·2조나 3·3조를 위주로 했으나 「차이소경」은 3·2조 뿐만 아니라 4·4조, 4·3조, 2·2조 등 다른 음수율도 포함했다. 더불어 김시습과 신광한 작품의 구성양식은 모두 ‘무서-본-난’식인데, 심언광의 작품은 ‘서-본-무난’식으로 되어 있었다.

김시습과 신광한의 작품이 내용면에서 「이소」와 비슷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시인의 옛날 삶과 처지를 사실주의적으로 지었고, 뒷부분은 환상 공간에 들어가 신선들과 교류하는 내용을 낭만주의 기법으로 그려내며 결심을 다지는 결말로 끝맺었다. 그 외에 심언광은 ‘즐거워하되 넘치지 않고 슬퍼하되 손상하지 않는다’는 문학과관과 달리 「차이소경」에서 그의 父親喪에 대한 내용을 많이 첨가함으로써 부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강하게 표현했다. 더불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심언광은 김시습과 신광한 작품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굴원에 이입하여 비분강개를 표출하기보다 문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고,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신하로서의 사명감을 가져 적극적으로 현실참여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장에서는 심언광의 「차이소경」을 살펴봄으로써 굴소 특유의 애원이라는 정서를 희석시키고 자기표현의식을 작품에 담아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심언광은 이 작품을 통해 제세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등 관각문

학적 성격을 보였을 뿐더러 전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치중하여 다른 문인들에 비해 독특한 매력을 펼쳐보였다. 심언광의 『차이소경』은 사부의 美를 확대한 것으로 조선 사부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심언광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의 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찰해 왔을 뿐 문집에 나타난 사부에 대해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부 장르에서 심언광의 賦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논의로 말미암아 앞으로 심언광의 사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 김시습, 『국역 매월당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윽김), 강원도, 2000.
심언광, 『국역 어촌집』, 정향교 외(윽김), 강릉문화원, 2006.
劉熙載, 『藝概』, 上海古籍出版社, 1978.
游國恩, 『楚辭概論』, 商務印書館, 1930.

2. 참고 논저

- 강지희, 「어촌 심언광 영사시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 『한문고전연구』 2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139-167쪽.
구도영, 「심언광의 김안로에 대한 정치적 활용과 그 의도」, 『인문과학연구』 44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359-388쪽.
김명준, 「중종 시대 심언광의 정치 문학」, 『인문논총』 43집, 경남대 언론출판국, 2017, 47-63쪽.
김성수, 「신광한의 사부문학-찬송·수신류」, 『한문고전연구』 17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08, 7-45쪽.
_____, 『사부문학연구』, 공주대 출판부, 2007.
류성준, 『초사』, 문이재, 2002.
박도식, 「어촌 심언광의 북방 경험과 국방 개선안」, 『한일관계사연구』 48집, 한일관계사학회, 2014, 45-92쪽.
박동욱, 「조선 지방관의 고단한 서북 체험-『북정고』를 중심으로」, 『영남학』 23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13, 37-61쪽.
박영주, 「어촌 심언광 시세계의 양상과 특징」, 『고시가연구』 27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1, 233-258쪽.
_____, 「어촌 심언광 시에 형상화된 관동의 풍토성」, 『한국시가문화연

- 구』 41집,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 5-29쪽.
- 백숙아, 「어촌 심언광 한시의 감성적 특징과 효과」, 『동아인문학』 45호, 동아인문학회, 2018, 55-81쪽.
- 범선균, 『굴원문학논집』, 신아사, 2001.
- _____, 『굴원작품 「이소」의 이해』, 신아사, 1997.
- 손홍철, 「어촌 심언광의 도학 정치관과 처세관」, 『율곡학연구』 41집, 율곡연구원, 2020, 127-156쪽.
- _____, 「어촌 심언광의 선비정신」, 『유교사상문화연구』 61집,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2015, 7-31쪽.
- 정시열, 「어촌 심언광의 한시 연구-『귀전록』에 나타난 만년심리에 대해 서」, 『퇴계학논집』 2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437-465쪽.
- 하정승, 「어촌 심언광의 변세시에 나타난 창작기법과 미적 특질-『서정고』, 『북정고』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42권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9, 119-154쪽.
- 한영규, 「어촌 심언광 문집의 판본에 대한 고찰」, 제12회 어촌 심언광 전국학술세미나, 2021, 67-92쪽.
- 葛曉音, 「從『離騷』和『九歌』的節奏結構看楚辭體的成因」, 『학술연구』 12기, 2004, 124-131쪽.
- 梁文勤, 「‘兮’의 演進」, 『中國韻文學刊』 35卷2期, 2021, 7-13쪽.
- 范永聰, 「韓國古代文人作品中的屈原意象」, 『동아문화』 54집,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16, 65-97쪽.

<Abstract>

A Study on Shim Eon-gwang(沈彦光)'s
Acceptance of Qu Yuan(屈原) cho-sa(楚辭)
- Focus on 「Chaisogyeong(次離騷經)」

Zhang, Zhong-Wu*

Eochon Shim Eon-gwang(漁村 沈彦光) is a civilian official and poet of the mid-Joseon Dynasty, and 『Eochon-collection(漁村集)』 containing his works remains. The first half of Shim Eon-gwang's life was relatively flat, but in the second half, he returned to Gangneung for bringing Kim An-ro(金安老), who monopolized power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and spent his last years there, and finished his diary in 1540. Shim Eon-gwang received negative reviews for his political activities in relation to Kim An-ro. Nevertheless, Shim Eon-gwang was recognized for his poetry because of his excellent literary ability.

Until now, research on Shim Eon-gwang has been conducted to some extent, but excellent Sabu(辭賦, a style of ancient Chinese poetry) in 『Eochon-collection』 have been left, and research on this has not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mid-Joseon Dynasty, when Shim Eon-gwang was active, it was a chaotic period due to large political events such as the massacre of scholars in year of muo(戊午士禍) and Gapja(甲子士禍) during King Yeonsan, and literati purge in the year of Gimyo(己卯士禍)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

* Sungkyunkwan University

Shim Eon-gwang's reappointment of Kim An-ro, who had caused purge several times, became the source of trouble and was impeached and returned home. This political career, like Qu Yuan(屈原)'s situation, was demoted from important positions by vile characters, so Qu Yuan's Cho-sa(楚辭) became an important soothing work for Shim Eon-gwang. In addition, despite the time difference of 1800 years between Shim Eon-gwang and Qu Yuan, the political situation was not stable, and they were not only in a turbulent era, but also exiled due to the hatred of kings and vile characters in high positions. In addition, there are several masterpieces in Shim Eon-gwang's anthology, so it seems necessary to compare them.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first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compilation of the editions of 『Eochon-collection』, and the changes in the masters contained in each edition. Furthermore, we will consider how the 『Chaisogyong(次離騷經)』 built by Shim Eon-gwang differs from the 『Eso(離騷)』 of Qu Yuan. In Chapter 3, we will first estimate the time when Shim Eon-gwang's 『Chaisogyong』 was created based on the master's content and annual report. In addition, there are two riches modeled after the 『Eso』 of Qu Yuan during the period before Shim Eon-gwang, one is Kim Si-Seup(金時習)'s 『Ieso(擬離騷)』 and the other is Shin Kwang-han(申光漢)'s 『Hwaesogyong(和離騷經)』, a contemporary figure with Shim Eon-gwang. Compared with the two works,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aisogyong』 written by Shim Eon-gwang. In Chapter 4, we will look at what position Shim Eon-gwang's 『Chaisogyong』 occupies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Key Words: Shim Eon-gwang, 『Chaisogyong』, Qu Yuan, 『Eso』,
comparative research, Kim Si-Seup, Kwang-han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24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15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17일